

'100년만의 가뭄' 신안군 올핸 물 걱정 없어요

35억 투입 저수지·용배수로 준설공사 이달까지 완료

들샘 등 생태연못도 195곳 조성...영농철 용수난 해결

지난해 100년만의 가뭄으로 영농기철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신안군이 상습 가뭄발생지역 내 저수

지 및 용·배수로 준설을 이달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모두 35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설사업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55개 지구 200곳의 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에 31억7000만원, 들샘 등 친환경 생태연못 195곳 조성에 3억7600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 지난 10일 현재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준설공사는 경지 정리 시행 후 정비하지 못한 용·배수로로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마을 앞 소형 용·배수로까지 추가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가뭄 때마다 물 걱정을 시름하던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저수지 등을 준설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농경지 복토로 써 우량농지 조성하고 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생태연못을 조성해줬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복원을 통해 농촌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 가뭄 없는 농촌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해마다 일부 저수지가 고갈되면서 모래기나 발농사 등에 차질을 빚었다. 신안군의 경지면적은 도내에서 5번째로 큰 2만여ha로, 이 가운데 마을, 양파, 고추, 시금치 등 밭작물 재배면적은 4500ha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한국춘란 '한눈에'

신안 압해 분재공원 16~17일 난 전시회

신안에서 자생한 한국춘란이 신안군 압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오는 16일부터 2일간 전시된다. 신안에서 자생한 란은 20여 종으로, 섬 지역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교잡해 번이 된 것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신안은 그 동안 압해도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는 황화소심 보름달과 임자도 살구, 신의도의 복색종투화소심 등 전국 최고 명품란 천운소가 배출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치가 높은 미공개 3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난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시장 야외분재원에는 주목, 해송 등 2000여점의 명품본체, 500여점의 아프리카 소나조각, 겨울부터 된 동백꽃, 1004개의 섬을 주제로 한 시와 그림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12일 오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남성해운(주), 목포신항만(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협약식을 가졌다. 이 항로를 오가는 주요 화물은 호남지역과 대불공단 등에 있는 전자, 자동차, 화학업체 등의 제품으로 연간 약 1만TEU의 수출입 화물을 수송하게 된다. <목포시 제공>

진도군-철도공사, 관광객 모집·홍보 업무협약

진도군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가 12일 진도군청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박철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진도군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모집, 서울본부 협력 여행사와 관광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

보·마케팅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진도군은 한국철도공사의 관광상품 개발·기획에 참여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철도 협력사의 기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예산 범위 내에서 철도 관광 상품 운영을 위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진도아리랑 등 민속 문화와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기자 여행객과 단체 관광객을 진도군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말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협력사 대표를 진도로 초청, 운림산방과 신비의 바닷길, 세방나초 등의 자연유산과 진도개, 진도 셋길국 등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실시한 후 호평을 받았다. 한편 다음달부터 매주 토요일 11시 목포역에서 출발, 진도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진도 투어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 지원 조례 만든다

시의회 관련법 상정...의정활동 기간 이동편의·의사소통 도와

중증 장애인인 목포시의회에 당선될 경우 의사소통이나 의견 개진, 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12일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명 서미화법)를 발의, 제306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오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관리규제 등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시의원이 당선될 경우 임기 개시일부터 만료시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보조활동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활동 지원 인력은 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다 연봉액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정활동 지원 규칙'도 마련했다. 조성오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 증진에 미력하나마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장애인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13일부터 21일까지 숙제되는 제 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용해아파트 5월부터 재건축 사업

건립된지 36년이 지나 노후한 옛 용해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오는 5월 본격 시작된다.<조갑근> 지난해 말 시행인가를 받은 시공사(주)서진산업개발은 오는 2015년 5월 준공하기로 하고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5층 4개동(150세대)으로, 재건축을 거쳐 지하 2층 지상 6~18층 5개동(227세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단지 주변에는 목포시의료원과 이호초고, 과학대학교, 여자상업고교 등 학교와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뒤편으로 녹지가 우거져 재건축 가능성이 높았다. 시공사는 소형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18평형을 주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진산업개발 김중서 대표이사는 "갈수록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대에 맞추어 최자의 분양가로 최대



의 주거환경을 공급해 장인정신을 가지고 입주자들로부터 만족도 100% 달성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순창군 산지소득사업 본격화

두릅·밤나무 등 유실수 130ha 조성 3억여원 지원

순창군이 특용수와 유실수 소득조립을 위해 130ha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산지소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두릅 및 밤나무 등 10여수종을 지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릅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하는 '두릅나무, 밤나무(밤나무) 재배관리 기술 및 마케팅'에 대한 임업기술컨설팅을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두릅나무·밤나무 재배자와 공무원이, 분야에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릅나무와 밤나무의 어린순은 신선한 향기와 특유의 짹짹한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우수한 고급 산채로 호평을 받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임산자원식물에 대한 비배관리와 임간재배 및 축산재배 등에 대한 기술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배자는 물론 공무원의 기술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컨설팅은 순창지역의 현직 재배자를 고려한 고품질화 및 인력부족의 농한기 유능노동력을 활용한 조기술화 방법의 축산재배 관리기술을 보급하고, 순창고추장 특산물을 연계한 마케팅 전략에 중점을 뒀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전북

통합 추진 전주시-완주군 상생 사업 '주민설명회' 연다

15일 우석대학교

통합을 추진 중인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해 준비한 5개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15일 우석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분양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이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는 용

역학사의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주민 질문, 답변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종합스포츠타운은 완주군 용진면에 국제 규모의 육상경기장 등을 갖추며 농산물 도매시장은 소비자 접근성을 따져 신축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위락단지 역시 경제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고 주택·아파트단지는 통합 이후 주택 수요를 예측해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

할 예정이다. 또 전북도와 전주시 산하 18개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완주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기능특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 지자체는 지난해 7월 4억9000만원을 들여 이들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장상진 전주시 부시장은 "완주군과 협의해 용역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모든 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풍천장어 양식 IT기술 동원

고창군 U-IT(만능정보통신망) 시스템 도입 폐사율 10% 생산성 향상...7억원 국비지원도

전북 고창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풍천장어'의 양식에 'U-IT(만능정보통신망) 시스템'이 도입돼 상품성과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2일 "U-IT 풍천장어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U-IT융합 모델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20%에 달하는 풍천장어의 폐사율을 10% 이내로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식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개월 단축돼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고창지역 양식장(220여개)에서 출하하는 풍천장어는 보통 실뱀장어를 1년 정도 키운 것으로 양식장마다 수조환경과 생육방법이 달라 출하량이 들쭉날쭉했다. 고창 풍천장어는 지난 2011년 기준 2040여t으로 전국 장어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 한우농가 사료물류창고 준공 12일 오후 순창군 필덕면 창덕리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와 최영일 군의회 의장, 농축협장, 축산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농가 사료물류창고 준공식이 열렸다. 한우농가가 공동 이용하는 이 물류창고로 인해 사료비용이 절감되고, 고효율을 발표사로 개발 및 보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신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 민원 178건 접수

정읍시가 시민과의 열린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2013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경로당 보수 등 민원 178건을 접수했다. 시는 민원 처리를 위한 실무담당 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고 건의사항 접수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통해 실행 가능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

려주도록 했다. 또 가능하면 법 규제와 예산상의 문제 등을 검토해 자체 처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생기 시장은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위한 연초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고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건의한 시민께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예술의 전당, 브랜드 슬로건 공모

군산시 예술의전당은 5월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다. 이번 브랜드 슬로건 공모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방문 혹은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작 1편에는 30만원의 시상금이, 우수작과 가작 1편에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당선된 슬로건은 군산예술의전당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물 제작 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남원 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인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 및 기존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12일 "최근 심의회를 갖고 스카로더 등 15기종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고 새로 구입하는 기종(관리기 등 113대)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일부 임대농기계 사용하다 보니 성능이 떨어지고 자주 고장이 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농번기에 임대농기계가 부족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전주시청 수영부 제주 한라배 종합우승

전주시청 수영부가 지난 제3회 김천 전국수영대회 우승에 이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20개 실업팀이 참가한 제8회 제주 한라배 전국 수영대회에서 금7, 은3, 동4개를 획득하고 연거푸 일반부 남자 종합우승의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전국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전주시청 수영부

가 단체전 계영 400m, 8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위, 혼계영 400m 2위, 자유영 100m, 200m에서 임대업선수와 피승연선수가 각각 1위, 3위 등에 입상했다. 특히 대회신기록을 4개나 달성하는 등 전주시청 수영부가 다시 한번 전국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